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Our Neighbors

튀르키예 청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뿌리처럼 한국에 뿌리내리다
KAIST 연수연구원 굴 오스만

KIS 24H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의 하루

ON AIR KIS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제19회 세계인의 날'



함께 성장하는 여름을 맞이하며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선물하는 그늘 아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무성해지는 나뭇잎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들도 풍성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일터이자 삶터에서 저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들의 생생한 삶,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5월 20일,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용산 아트홀을 가득 메운 32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약 700여 명의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여름 호에서는 ‘K-STAR 비자트랙’을 통해 한국에서 연구자의 꿈을 펼치고 있는 튀르키예 출신 연구원의 이야기부터, 작은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의 다채로운 풍경,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외국인과의 동포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온 직원들의 이야기까지 폭넓게 전해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한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이민자 멘토를 새롭게 위촉하였고, ‘동포체류지원센터’를 2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86만 명의 동포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해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과 이민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결실있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용 호

Welcoming a Summer of Growing Together

It is the season when we are drawn together beneath the welcome shade gifted by the scorching midsummer sun, and when our society grows richer and more abundant with the many lives and stories that flourish like the lush leaves of summer.

In this summer issue, we feature the vibrant lives of those who are forging their own paths in South Korea—a place where we work and live—as well as the spirit of “coexistence” that our society is building together.

Under the slogan of “The Republic of Korea, broadened by inclusion and growing together through diversit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eld the 19th “Togetherday” commemorative ceremony on May 20.

It was a meaningful gathering where approximately 700 Koreans and foreign nationals—including diplomatic envoys from 32 countries based in Korea, filled the Yongsan Art Hall and came together to share the spirit of harmony and mutual prosperity.

In addition, this summer issue features a wide range of stories, from a researcher from Türkiye pursuing his dreams in Korea through the “K-STAR Visa Track,” to the vibrant scenes of the Ansan Multicultural Village Special Zone—a microcosm of the global community—and the stories of staff members who have warmly embraced foreigners and compatriots in various settings across the countr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s also pushing forward with various policies for immigrants with a passion as intense as the scorching sun.

Last April, we appointed new members of the Immigrant Mentor Group to help immigrants adapt to Korean society, and expanded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 Support Centers Nationwide” from 23 to 37, bringing us one step closer to the 860,000 overseas compatriots.

Last June, we established the “Migrant Rights Division,” taking a new step toward eliminating gaps in the protection of foreign nationals’ human right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continue to strive to build the Republic of Korea where Korean and foreign nationals can coexist and thrive together.

I hope you all have a healthy and fruitful summer. Thank you.

Cha Yong-ho,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CONTENTS



06



18



28

통권 76호(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02-2110-4019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편집·디자인 (주)위닷(02-6205-9246)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STORY Zone

04 K-Style

여름이 건네는 말

06 Our Neighbors

튀르키예 청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뿌리처럼 한국에 뿌리내리다
KAIST 연수연구원 굴 오스만

10 Me&You, Ours

재한 외국인 & 직원들 미담사례

12 Hi-Story

박연(안 안세 웰테브레),
조선 최초의 귀화 서양인 이야기

14 Diaspora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 여행,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KIS Zone

18 KIS 24H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의 하루

22 Zoom In KIS

전국 86만 동포의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26 Briefly KIS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외국인 고용특례’ 제도 신설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이 ‘카드포인트’로
바뀝니다

28 ON AIR KIS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제19회 세계인의 날’

SHARE Zone

32 Catch-Up KOREA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한국 사회

34 KIS New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소식

36 KIS Q&A

세계 최고 연구자를 위한 ‘토티어 비자’,
무엇이 달라졌나요?

38 For R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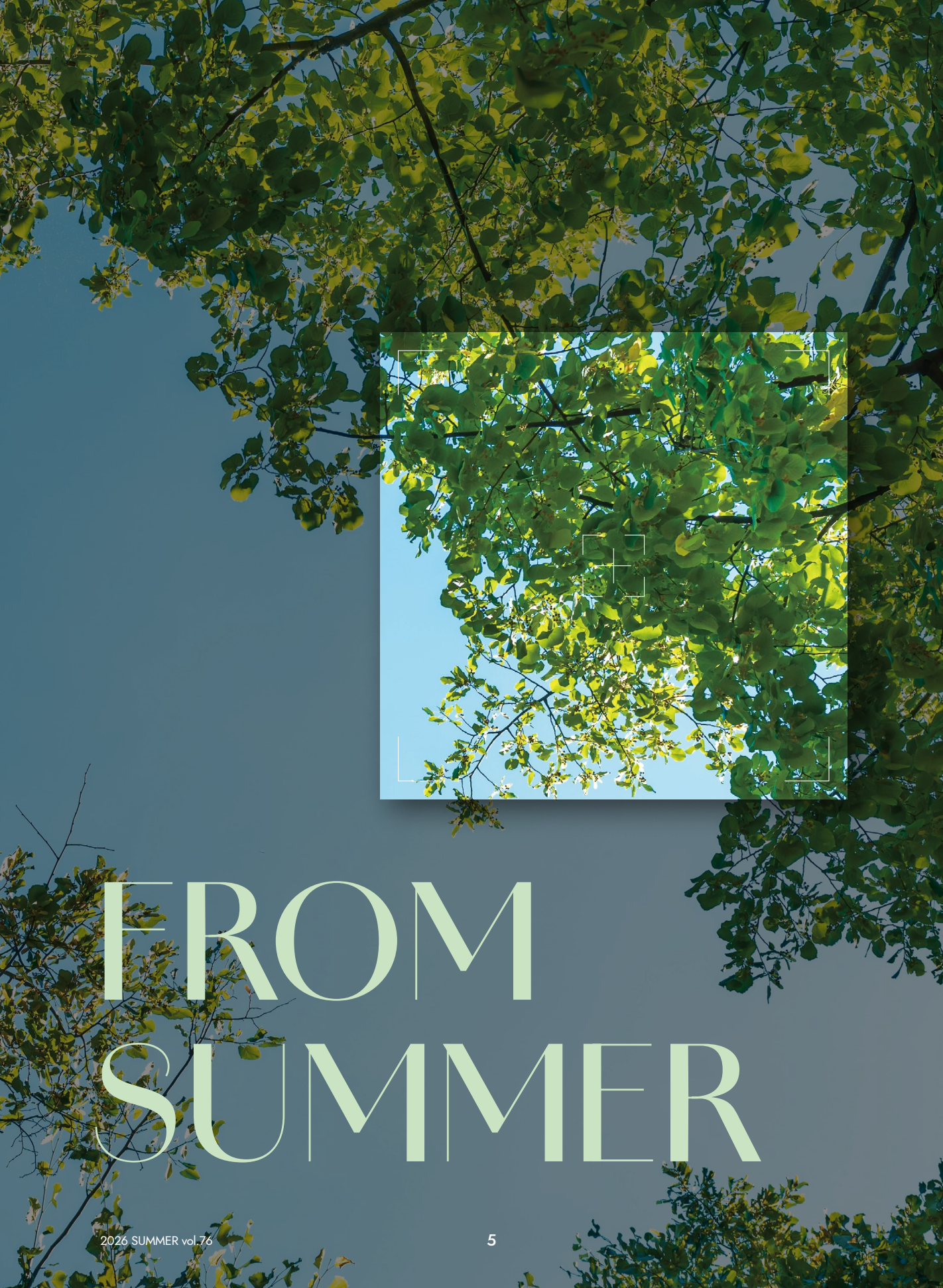
<공존> 독자들을 위한 이벤트

뜨거운 여름의 햇살은 어김없이
나무 곁에 그늘을 놓아줍니다.
차가운 음료와 반쯤 읽다 덮은 책, 초록 잎 사이로 번지는 바람,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가 그늘 아래로 하나둘 모여들죠.

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도시의 저녁은
더 긴 여름밤을 선물해요.
가까운 공원과 강변에서 우리는 익숙한 음식을 나누고,
누군가는 처음 맛보는 이 계절을 기억합니다.

서로 다른 삶이 나란히 앉아 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시간.
어느 평범한 여름날의 짙은 풍경 한 장이
건네는 말에 귀 기울여 보아요.

여름이 건네는 말 WORDS



FROM SUMMER

튀르키예 청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뿌리처럼 한국에 뿌리내리다

KAIST 연수연구원 굴 오스만(GUL OSMAN)





KAIST 기계공학과 대학원 시절©KAIST

반갑습니다. 한국에서의 지난 13년을 빠르게 돌아본다면?

2014년 한국정부초청장학생(GKS)으로 선발되어 튀르키예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1년간 한국어학당을 수료한 뒤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해 2019년 졸업했고요. 졸업 후 서울에서 잠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연구에 대한 갈증이 커서 2020년 KAIST 기계공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2022년 2월 석사, 2026년 2월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KAIST 이노코어 연구단에서 박사 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연·신축성 전자소자를 재료 관점에서 개발하고 있고, 최근엔 AI 기반 설계로 연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계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며 독일 보쉬(Bosch)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현대차나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모습과 밝은 미래 전망

Take Root in Korea

2014년, 스무 살 청년은 튀르키예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로부터 13년,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KAIST 연수연구원으로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소자를 연구하고 있다. 유연 기판의 계면 분리 문제를 나무뿌리 구조에서 착안해 풀어난 그의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고, 다수의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지난 4월 K-STAR 비자트랙*을 통해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그의 13년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에도 자연스럽게 눈이 갔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죠. GKS에 선발되면서, 그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꿈들을 지금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출국 직전 어머니께서 전화로 '정말 잘 생각한 거니?'라고 물으셨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저도 확신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합니다. 13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안전하고 활기 넘치던 거리의 모습에 '정말 역동적인 나라구나' 느꼈던 기억도 여전히 선명합니다.

K-STAR 비자트랙이란?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인재 영주 지원 제도. 기존에 5개 과학기술원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가 27개 일반 대학까지 확대·개편(총 32개)된 제도(26년 2월)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와 직접 개발한 장치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인생이 참 의미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연구 환경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KAIST는 연구 장비와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효율적인 작업, 폭넓은 분석이 가능하죠. 활발한 연구 문화 덕분에 전 세계 연구자들과 최신 동향을 빠르게 공유하며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여러 나라와의 공동연구 기회도 풍부합니다. 저 역시 2025년 홍콩시립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지내며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언어를 배우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물론 한자까지 익히며 문화적으로도 최대한 자연스러워지려 노력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갈등이 쉽게 생기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비로소 한국 분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한국어로 TV를 보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어려운 단어는 한자와 함께 익혀갔습니다. 그 결과 13년 중 11년 동안 한국어능력시험(TOPIK) 최고 등급인 6급을 유지했습니다. 박사학위 발표와 연구 성과 관련 뉴스 인터뷰 4건,

그리고 KAIST 2026년 졸업식 대표 연설까지 모두 유창한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CI 논문 14편을 발표하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를 소개해 주신다면.

네이처(Nature)지에 논문을 실는 것은 학부 1학년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유연·신축성 전자기기 분야의 큰 난제 중 하나는 성질이 다른 두 재료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계면 분리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법을 나무뿌리에서 찾았습니다. 나무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들며 산사태나 강풍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나무를 단단히 지탱하는 모습에서 착안해, 유연 기판과 신축성 기판 사이의 계면에 나무뿌리 구조를 모사한 설계를 적용하고 최적화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약 7배 이상의 신축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고, 8년을 품어온 꿈대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로 이어졌죠.



KAIST 2026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연설자로 연설 중인 모습©KAIST

최근 영주(F-5)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외국인으로 살다 보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는 일이 늘 조심스럽고 긴장됩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신분으로 지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영주권을 받고 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휴, 이제 10년은 자유인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1~2년마다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그 준비 과정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K-STAR 비자트랙'이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서류 준비와 요건 충족, 행여 거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적지 않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또, 거주(F-2)에서 영주(F-5), 특별귀화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 장기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려면 몇 년에 걸친 축적이 필요한데,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더 도전적인 연구에도 뛰어들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뿌리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한국 과학기술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과학과 사회에 큰 혁신을 가져오는 연구를 해내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목표입니다.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와 직접 개발한 장치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인생이 참 의미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재의 정착은 물론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 나아가 사회 발전에까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



2026년 2월 KAIST 개교기념식에서 2026년 글로벌 리더십 포상 수상©KAIST

꿀 오스만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운동

동네 헬스장에서 땀 흘리기



여행

경주와 부산

경주에서는 동궁과 월지, 불국사, 석굴암을, 부산에서는 해동용궁사를 즐겨 찾는다. 한국에 오신 부모님과도 함께 다녀온 곳



취미

한국의 카페 탐방

콘셉트마다 다른 공간에서 다양한 커피를 즐기는 덕분에 카페 지출이 만만치 않다고



버킷리스트

한강 러닝

주말마다 한강에서 달리는 것이 오랜 소망. 지금은 대전에 살고 있어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와 너를 이어주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

따뜻한 이야기

“사람의 생명이 먼저” 아픈 외국국적 동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도움받아 가족 품으로

외국국적 동포 A씨(56세)는 심각한 골다공증과 폐질환 통증을 견디며 일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정식으로 혜택이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퇴거, 보호 등 처벌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구호 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인천출입국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 인천광역시의료원 응급실로 A씨를 긴급이송, 응급치료를 받게하여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지원센터와 화교협회의 도움을 이끌어내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안정을 취할 쉼터까지 마련하는 등 촘촘한 구호망을 펼쳤습니다.

A씨는 재외동포로서 불법체류 상태였지만 질병치료 등을 계속 받아야 하는 인도적 사정을 감안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전액 면제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도 연장 하였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가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수년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인천출입국에서 직접 아들의 마지막 연고지로 내려가 발로 뛰며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아들의 거주지를 찾아내어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였으며, A씨는 가족의 품에 안겨 따뜻한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박진하 팀장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저희 인천출입국 사범과의 노력을 따뜻한 미담으로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픈 동포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마주했을 때, 박근원 사범과장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직원은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는 일념으로 구호조치와 가족을 찾는 일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끊어질 뻔한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드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저희 모두에게도 매우 보람있고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든든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김재현 담당자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 소재 외국인학교의 인사팀입니다. 평소 외국인 교사들의 비자 업무와 관련하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항상 큰 도움을 주신 덕분에 학교의 학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원청 사증실의 김재현 담당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년 많은 신규 외국인 교사들의 비자 신규 신청과 서류 준비, 각

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들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업무를 매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와 스페인어 등 외국어에도 능통하셔서 외국인 교사들과 직접 원활하게 소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매우 든든했고, 국제적인 민원 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배려를 함께 갖춘 대한민국 공무원이 계시다는 점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2026년 5월 18일 from. 유○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김재현 실무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실은 전국 출입국관서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민원창구에서는 민원인이 비록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일지라도 언어의 제약으로 인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증실에 방문한 외국인학교의 한 선생님의 모국어가 스페인어인 것을 파악하고 짧은 스페인어 인사말과 함께 영어로 비자신청 관련 규정을 설명해 드리고 선생님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 많은 업무를 한 것뿐이지만 이렇게 따뜻한 칭찬 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한 외국인 이야기

노래로 이어진 마음, 재정착난민 아동합창단, '하울림 합창단' 이야기

대한민국에는 전쟁과 박해를 피해 새로운 삶을 찾아온 재정착 난민들이 살고 있다. 그중에는 부모의 선택으로 낯선 나라에 오게 된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들이 겪는 혼란과 두려움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작은 노래모임으로 시작된 합창단이 있다. 미얀마 카렌족 출신 재정착난민 아동과 청소년 14~16명이 함께하는 '하울림 합창단'이다.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은 2017년 재정착난민 아동들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 한글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아이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속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떠오른 "노래를 통해 정서적 지원도 하고 한글을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합창단의 시작이다.

지휘자도, 반주자도 없이 출발한 노래모임이었지만 아이들은 어느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언어보다 노래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은 2019년 첫 '고향의 봄' 무대를 시작으로 새로운 사회와의 만남을 이어왔다. 카렌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매년 여러 무대에 서며 2025년에는 어린이 평화 노래 부르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울림 합창단에게 상은 목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래로 전하는 것이다. ①

2026년 6월 30일 from.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 권인순 사무국장



1627년, 거센 풍랑이 몰아치던 조선의 바다.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한 네덜란드 선원이
낮선 땅에 발을 디뎠다. 그의 이름은 얀 안세
웰테브레(Jan Janse Weltevree).
훗날 조선이 그에게 내린 이름은
'박연(朴燕)'이었다. 파란 눈과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이 낯선 이방인은 그로부터
수십 년간 조선의 무관으로, 화포 기술자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갔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서양인 귀화 무관,
박연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풍랑이 바꾼 운명

1626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선원이었던 웰테브레는 홀란디아호를 타고 먼 동양의 바다를 향해하고 있었다. 이듬해 일본으로 향하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나 조선의 경주 근해에 표류하고 말았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마실 물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육지에 상륙했다가 조선 주민들에게 발견되고, 결국 경주 관아에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는 길에 오르게 된다.

... 왕 앞에 서다

1628년(인조 6년), 박연 일행은 마침내 한양으로 이송되어 인조에게 직접 귀환을 호소했다. 원래 조선의 관례라면 표류자를 본국이나 목적지로 돌려보내야 했다. 그러나 당시는 청나라의 침입 직후라 육로는 막혀 있었고, 해로를 통한 송환도 여의치 않았다.

박연(얀 안세 웰테브레),
조선 최초의 귀화 서양인 이야기

파란 눈의 조선 무관



전장에 사용된 신식 무기 '홍이포'를
AI로 생성한 이미지



네덜란드 알크마르의 데 레이프(De Rijp) 마을에 세워진
박연의 동상 © 위키백과 Martin D

Jan Janse Weltevree

●●● 조선 최초의 외인부대장

박연의 역할은 기술 전수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훈련도감 내 외국인 부대의 장(將)으로 임명되어, 임진왜란 때 투항한 일본 군인과 표류해 온 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외인부대를 지휘했다.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조선어에 능통했던 박연만이 맡을 수 있는 독특한 보직이었다. 1648년 8월, 박연은 조선의 무과(武科) 정시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는 기록을 세운다. 조선 군대의 정식 장교로서 공인된 신분과 권위를 얻은 것이다.

●●● 조선인으로 살다

박연은 조선 여성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큰 키에 노란 머리카락과 파란 눈을 가졌음에도, 조선의 양반층과 교류하며 완전히 조선 사회에 녹아들었다. 겨울에도 솜옷을 입지 않을 정도로 건장했다는 기록과 함께, 선악과 화복의 이치를 자주 이야기해 '도자(道者)와 같다'는 평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개신교 신자였던 그의 종교 생활도 훈련대장이 직접 '간섭하지 말라'고 지시할 만큼 보장되었다. 조선 조정이 그의 기술과 역량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박연이 보여주는 조선의 외국인 정책

박연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가 외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준다. 외국인이 외부에 지리·군사 정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엄금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다. 박연처럼 군사 기술이나 과학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은 핵심 군영에 배치해 신무기 개발에 동원하는 등 기술 중심 인재 활용이 돋보인다.

또한 조선식 이름을 하사하고 조선 여성과의 혼인을 주선하여 영구 정착을 유도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인재에게는 파격적 우대와 종교 관용을 베풀 점 역시 열린 외국인 정책의 단면이다. 이런 원칙은 표면적으로 통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외국인의 전문성을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실용적 지혜가 담겨 있다. 🇰🇷

결국 조선 조정(당시 정부)은 이들을 조선 내에 억류하기로 결정하고, 군사 전문 기관인 '훈련도감'에 배속시켰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은 굳게 닫혔지만 박연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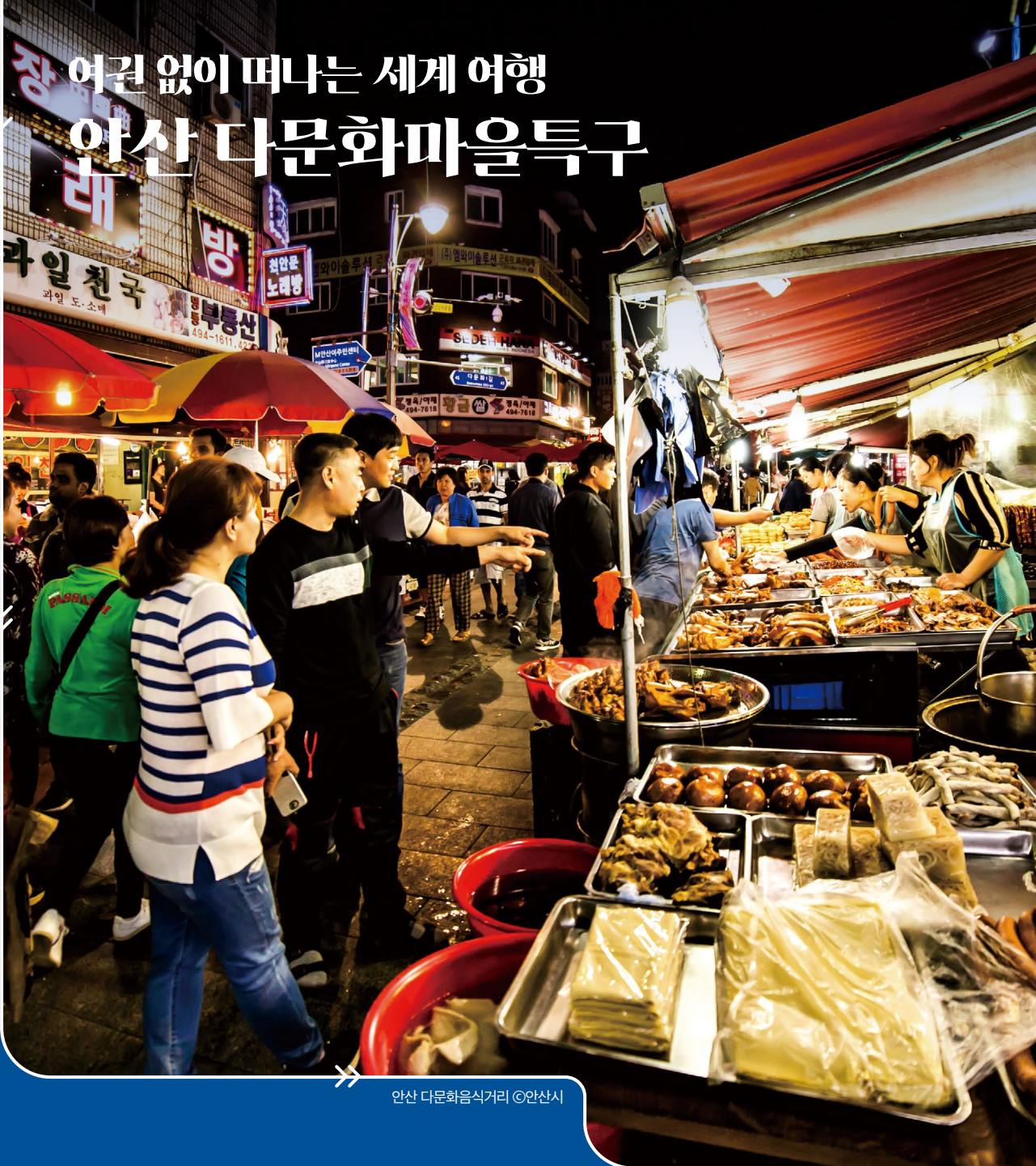
●●● 파란 눈의 무관 '훈련도감'의 핵심이 되다

박연은 단순히 억류된 이방인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조선 군대의 중심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낸 핵심 인재였다. 훈련도감에서 일하게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화포 기술이었다. 그는 네덜란드군이 사용하던 대포를 모방한 신식 무기 '홍이포(紅夷砲)'의 제조법과 조종술을 조선군에 전수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1652년, 마침내 홍이포를 완성해 냈다. 이는 효종의 북벌 정책(청나라 정벌 계획)에 필요한 화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성과였다. 당시 문헌인 《석재고(碩齋稿)》는 이렇게 기록한다. "박연은 병서에 재주가 있고 화포를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 재능을 살려 나라에 홍이포 만드는 법을 전하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지하철 4호선 안산역 1번 출구를 빠져나오면 눈과 귀가 먼저 달라진 공기를 알아챈다. 한자와 키릴 문자, 아랍어가 뒤섞인 간판들이 골목 어귀에서부터 줄을 잇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 소리와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비행기 한 번 타지 않았는데 어느새 낯선 나라의 골목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하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국적인 풍경을 품은 마을,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다.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 여행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이
주
가
만
든
풍
경



안산 다문화음식거리 ©안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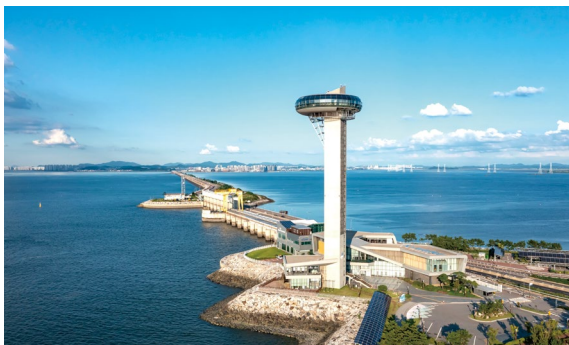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안산시

이주가 만들어 낸 풍경 100여 개국이 어우러진 '한국 속 작은 지구촌'

안산 다문화마을특구가 위치한 원곡동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이 땅에 발을 들였다. 산업단지와 가깝고, 주거비가 비교적 저렴했던 원곡동 구도심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고향의 맛이 그리운 이주민을 위한 식료품점과 소박한 식당들이 하나둘 골목을 채웠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작은 동네를 둘러싼 안산시는 118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한국 속 작은 지구촌'으로 자리잡았다. 그 중심이 된 마을 원곡동은 2009년 5월 국내 최초 '다문화 마을특구'로 지정됐고 2024년 기준, 원곡동 전체 주민 2만여 명 중 약 89%에 달하는 1만 8천여 명**이 이웃으로 살아간다.



시화나래휴게소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한눈에 보기

특징

국내 최초 다문화마을특구(2009년 지정)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18개국 이상의 이주민이 이웃으로 살아가며 각자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가고 있는 '한국 속 작은 지구촌'이다.

이국적인 먹거리

세계 각국 현지 출신 요리사가 만드는 현지 음식과 각종 식료품점이 즐비하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가는 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

(교통) 수도권 전철 4호선·수인분당선

안산역 1번 출구 도보 1분

(다문화음식거리) 매일 11:00~20:00

차 없는 거리 운영

(주차) 부부로 공영유료주차장(주말·공휴일 무료), 안산역 환승 공영주차장 이용 권장

*안산시 2025년 4월 발표 기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발표 2024년 6월 말 기준



안산 다문화음식거리 ©안산시



안산 다문화음식거리 ©안산시



다문화음식거리에서 즐기는 세계의 맛 5

- ① **베트남, 디유히엔관 DIEU HIEN QUAN**
신선한 재료로 퓨전화보다는 정통 베트남
요리를 추구하는 베트남 요리 전문점
- ② **인도-네팔, 사가라마타 Sagara Mata**
네팔의 담백한 가정식 정식 요리 전문점
- ③ **인도네시아, 크다이린자니 Kedai Rinjani**
현지인 주인이 고향 룬복 음식을 재현하는
인도네시아 요리 전문점
- ④ **태국, 밋타이 Michtai**
정통 태국 음식을 술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의 태국 음식 전문점
- ⑤ **러시아, 임페리아 Imperia**
고려인들이 요리하는 달콤하고 시콤한
러시아 요리 전문점



출처=안산 세계의 맛집 책

Food Street

오감으로 걷는 다문화음식거리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그 맛' 그대로

이 마을의 심장부는 단연 다문화음식거리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차 없는 거리 특례)돼 여유롭게 걷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여행이 된다.

양꼬치가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화덕에서 갓 꺼낸 빵의 고소한 냄새, 옆 좌판에는 낫선 열대와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 거리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네팔,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내는 식당 2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특히 안산 다문화특구 내 음식점은 본토의 실력 있는 전문 조리사를 정식 초청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 덕분에 현지에서 먹던 '그 맛'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이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길거리 간식도 풍성하다. 중국식 파배기인 요우티아오는 어른 팔뚝만 한 크기로 튀겨져 따뜻한 콩국물 도우장과 함께 나온다. 중앙아시아 전통 빵 삼사는 화덕 벽면에 붙여 구워낸 바삭한 페이스트리 안에 다진 고기와 양파가 그득하다.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양꼬치와 닭날개 구이, 그리고 동남아 현지 시장에서나 볼 법한 두리안, 망고스틴, 잭프루트까지. 이 거리는 그야말로 세계 음식의 종합 선물세트다.

세계를 만지는 공간, 안산시 세계문화체험관 전통의상 수백 벌과 50개국 예술품이 한자리에

음식거리의 흥겨움 뒤에 조용히 깊이를 더하는 공간이 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에 자리한 안산시 세계문화체험관은 50여 개국에서 수집한 1,400여 점의 유물과 예술품이 살아 숨 쉬는 문화 교류의 장이다.

아프리카 전통악기 핑거피아노 칼림바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면 맑고 신비로운 소리가 울린다. 영화 <E.T.>의 주인공 모델로 알려진 가나 전통 인형 아쿠아바, '러시아의 돌리'로 통하는 캐릭터 체부라시카, 깃털 달린 공을 나무 라켓으로 주고받는 일본 전통 놀이 하네츠키까지. 전시물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문화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전통 의상 체험실에는 영국 근위병 근무복부터 우즈베키스탄 전통 혼례 의상까지 250여 벌이 준비되어 있다. 직접 입어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시간은 어른 아이 모두 즐겁다. 중국, 베트남, 일본, 콩고,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지도교사들이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관람과 체험 모두 무료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주말·공휴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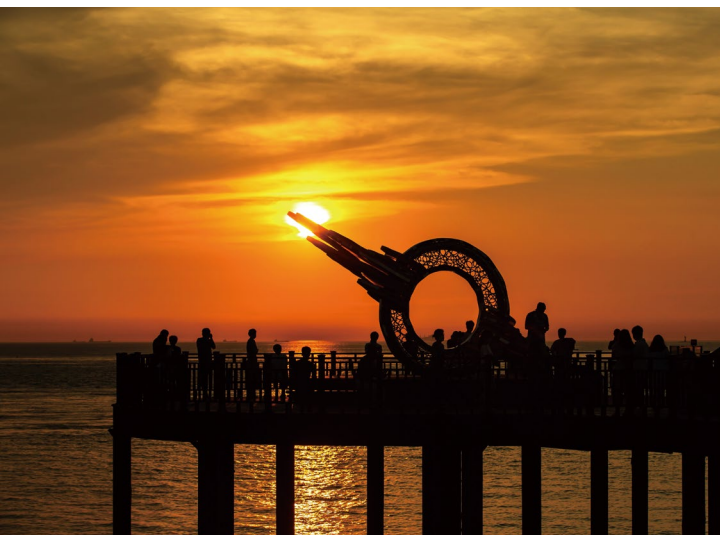
안산시 세계문화체험관 ©한국관광공사

3

World Culture Experience Center

마을을 나서며 대부도의 노을, 시화호의 바람

원곡동의 열기를 온몸으로 담은 뒤, 조금 더 여유를 원한다면 안산의 자연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차로 10분 거리의 화랑유원지에는 호수를 품은 넓은 산책로와 경기도미술관이 있어, 복잡한 거리 여행 후 마음을 가라앉히기 좋다. 차를 타고 조금 더 멀리 간다면 대부도와 구봉도가 기다린다. 구봉도낙조전망대는 안산이 자랑하는 9경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다. 바다 위 전망대에 서면 서해안의 노을이 파도에 부서지며 금빛 물결을 이룬다. 시화나래 달전망대도 놓치기 아깝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옆, 25층 높이의 전망대에서는 서해와 시화호가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강화유리 바닥의 스카이워크 위에 서면 발 아래로 아득히 펼쳐진 바다가 묘한 설렘을 안긴다. ❶



구봉도 낙조

4

Daebudo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KIS
24h

일반계류 담당 이수지 계장

대행기관 전용 창구 담당 조혜라 계장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담당 김정희 계장

대행기관 전용 창구 & 이동출입국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의 하루**

수도권과 맞닿은 이 도시, 천안은 쉽 없이 돌아간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대학 캠퍼스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북적인다. 천안에서 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예산군 들녘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농사일을 시작한다. 이 모든 현장을 촘촘히 잇는 곳이 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다. 충청남도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60%가 몰려 있는 이곳에서 오늘도 직원들을 출입국 업무에 한창이다.



09:00

"하루가 시작되기 전, 민원인을 먼저 맞이합니다"

업무 개시 10분 전, 사무소 출입문이 열린다.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 순간, 직원들은 무인발권기 앞으로 먼저 나선다. "출입국 민원은 창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방문 목적을 먼저 여쭙보고 맞는 번호표를 직접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직원들의 작은 수고로움이지만,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한 저희 출장소만의 작은 배려입니다."(이수지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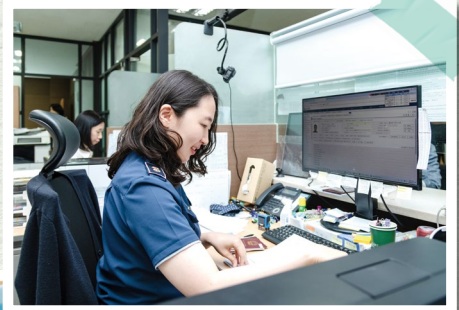


10:00

"예약 없이도 빠르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오전부터 대행창구에는 행정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사전 방문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는 '대행기관 전용 창구'가 생긴 덕분이다. 2025년 11월, 법무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천안출장소의 만성적인 예약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월 26일 문을 열었다. 전용 창구 개설 이후 창구 운영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4시로 연장하고, 대행 가능한 체류자격 범위도 37개 전 체류자격으로 전면 확대했다. 5월 기준 하루 평균 약 38건의 민원이 이 창구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전체 예약 민원 수요의 약 15%를 분담하는 규모다.

"지금은 전용 창구에서 현장 접수가 바로 되니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방문하시는 행정사분들이 하나같이 깊은 감사를 표하시고, 창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 자주 문의하세요."(조혜라 계장)



10:30

"한 장의 서류 뒤에 담긴 삶의 이야기"

일반체류 창구에서는 이수지 계장이 서류를 검토한다.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신청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접수가 이어지지만 이 일이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안다. "외국인의 체류이력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한국에서의 삶 전체가 보여요. 제 앞에 놓인 서류 한 장이 그분 인생 타임라인의 중요한 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 허투루 볼 수가 없어요."(이수지 계장)

전용 창구에서
현장 접수가 바로 되니
업무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44일이 11일로, 기업에 숨통을 틔입니다"

E-7 전문인력 사증 담당 김미영 계장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다. 인력 수급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이 보내온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서류들이다. 읍·면·외곽에 자리한 공장들은 내국인 구인 자체가 어려워, E-7 전문인력이 제때 오지 않으면 협력사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천안출장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류로 충분히 입증되는 정상 신청 건에 한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신속 심사를 도입했다. 부설연구소 인증서, 특허권,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을 기업에서 받고, 외국인에게는 자격증과 포트폴리오를 제출받아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E-7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기간이 44일에서 11일로 줄었어요. 꼭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면 기업의 납기 부담이 줄고, 결국 지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김미영 계장)



"계절근로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김정희 계장은 45분 거리의 예산군청으로 향한다.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농번기가 되면 계절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출장소로 몰리는 구조적 혼잡을 해소하고, 외곽 농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예산군청 1층 민원실. 오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근로자들의 숙소와 일터가 군청 가까이 있어 접근이 쉽고, 고용주와 군청 담당자, 출장소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애로사항을 바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이 방식의 장점이다.

"한번은 접수 중에 외국인 근로자분이 여행자보험 서류를 숙소에 두고 오신 거예요. 10분 만에 다시 가져오셔서 바로 접수가 됐는데, 만약 천안출장소였다면 고용주분과 함께 다시 오셔야 했을 거예요."(김정희 계장)



"오늘도, 한 사람의 하루에 보탬이 되었기를"

하루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간. 천안출장소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한다. 충남 체류 외국인의 60%를 책임지고, 교도소 출소 외국인 호송이라는 특수 임무까지 병행하는 곳. '출장소'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역동적인 이 현장에서 이들이 버티는 힘은 분명하다. 민원인 한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 낯선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에 오늘 하루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오늘도, 한 사람의 하루에 보탬이 되었기를



‘출입국민원’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아요



❶ 대행기관 전용 창구란?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변호사·행정사 등)이 사전 방문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다. 천안출장소는 충청권 최초로 2026년 1월 26일 개설하였으며, 현재 37개 전 체류자격의 비자 신청 대행이 가능하고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❷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란?

유학생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관서 방문 없이 현장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농번기 우천일이나 농작업 종료 후 시간대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Q.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김미영 계장 신속 심사 덕분에 꼭 필요한 인력을 제때 채용했다는 기업의 이야기를 들으면 빠른 행정이 실제 현장을 바꾼다는 걸 느끼죠.

조혜라 계장

대행창구 운영에 감사하다며 제도가 지속될 지 여부를 자주 문의하시는 행정사분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서류가 미비해도 최대한 빨리 보완해 주시려는 모습에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이수지 계장

유학생으로 입국한 분이 취업, 거주, 영주자격까지 이어지는 이력을 마주하면 제 앞의 서류 한 장이 그분 삶의 성장 과정 중 한 순간임을 실감합니다.



김정희 계장

현장에서 서류를 바로 접수하고 돌아가는 근로자와 고용주분들의 밝은 표정이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줍니다. 🌟





광주 고려인마을 '한민족 정체성 강화 교육'

전국 86만 동포의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 더 가까이 더 촘촘하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재외동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가까운 곳에서의 도움'이다.
체류자격 변경부터 한국 생활 적응,
취업과 교육까지 궁금한 점을
상담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해 주는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사상 첫 정부 예산 투입... 전국적 동포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올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기존 23곳에서 37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센터가 없던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14개 기관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전국적인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동, 한민족 정체성 함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체류자격과 생활 정보는 물론 취업과 창업, 한국어 교육, 자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에 지원된다. 그동안 민간의 후원과 자체 재원에 의존하던 센터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동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동포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 5월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새롭게 지정된 14개 동포체류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과 간담회도 열렸다. 이날 참석한 대표와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더욱 중요해진 사회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재외동포 비자 통합’ 이후 6월말까지 약 4만 9천명 재외동포(F-4) 자격 전환

법무부는 올해 2월 시행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후 동포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동포들은 제한 사유가 없으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법무부는 4만 9천여 명에게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허가하여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에 발맞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지역별 맞춤형 동포 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86만 동포 대상 국내 정착 지원

이번에 지정된 센터들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국내 86만 동포를 대상으로 법적 지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생활 상담, 한국어 능력 및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로 센터들은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은 고려인 역사와 한국사회 이해를 돕는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글로벌센터’는 동포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시행해 지역 경제와 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동포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위)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고려인 역사 사진전'
(아래) 제주글로벌센터 '동포 관광통역안내사 취업 교육'

한눈에 보는 동포체류지원센터



37 곳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14 곳

신규 지정(2026년 6월)



4만 9천여 명

F-4 체류자격 변경 허가(시행 후 6월말까지)



최초 정부 예산 지원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
확인하기



동포의 정착을 돕는 가장 가까운 이웃

동포체류지원센터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센터장 인터뷰

경기 북부에는 그동안 동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올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상록 센터장은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Q. 올해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는 어떤 곳인가요?

그동안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문화교류와 교육, 상담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올해 새롭게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낮추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입니다.

Q.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가장 호응이 높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사회통합은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위) 동포체류지원센터 개소식



(아래) 경기도 포천시 주민 참여형 축제 참여

동포들은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다문화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주민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국제학교 수업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올해로 21년째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국제학교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동포체류지원센터도 전국 3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동안 현장 단체들의 순수한 봉사와 기부금, 민간 자원에 의존해 오던 동포 지원 활동이 국가적 차원의 공식 사업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동포들은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다문화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주민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포는 전체 이주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법무부 종합안내센터인 1345는 수요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동포 역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입니다. 한민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동포체류지원센터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Q. 앞으로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경기 북부에는 10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동포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취업 정보뿐 아니라 기술교육과 창업 컨설팅까지 연계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교육이 가능한 기업들과 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외국인 고용특례' 제도 신설

"Special Exemption for Hiring Foreign Workers" Newly Established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Population-Decline Areas



Where?

-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 ✓ 소상공인 허용 업종
제조업·도소매업·음식점업
- ✓ 농업법인
- ✓ 89 Population Decline Areas
- ✓ Eligible Small Business Sectors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Food Service
- ✓ Agricultural Corporations

How?

1	고용계약 체결 Sign an employment contract
2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광역자치체) Obtain a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the Regional Specialized Residency (F-2-R) Visa (from the provincial governments)
3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Obtain approval from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e.g., Approval for Change of Status of Sojourn)
4	고용 개시 Commence employment

Why?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식당, 가게, 농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In the Population Decline Areas, small business owners—such as those running restaurants, shops, and farms—are struggling to find workers.

(기존)내국인 직원 1명 이상 있어야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 고용

(변화)내국인 직원 없어도 일정 요건 갖추면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 (F-2-R) 1명 고용

(Previously) Must have at least one Korean employee to hire a foreign worker on the "Regional Specialized Residency Visa (F-2-R)"

(Change) Even without Korean employees, a foreign worker on the "Regional Specialized Residency (F-2-R) Visa" may be hired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Who?



외국인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소지자

사업장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
(또는 최근 2년 평균 1억원 이상)

Foreign nationals: Holders of the Regional Specialized Residency (F-2-R) Visa

Business: A business that has been in operation for at least 3 years, with sales of at least 100 million won in the previous year (or an average of at least 100 million won over the last 2 years)

When?

시범 운영 기간 2026년 5월 18일 ~ 2027년 12월 31일

Pilot Program Period May 18, 2026 – December 31, 2027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란?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농업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What is the Special Employment Exemption for Small Business Owners to Revitalize Local Economies?

It is a system that enables small business own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in Population Decline Areas to hire foreign nationals holding the Regional Specialized Residency (F-2-R) Visa,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이 '카드포인트'로 바뀝니다

Refugee applicants will now receive living costs support through 'Card Points'



무엇이 달라질까? What will change?

- ✕ 기존 방식(현금 계좌이체)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워 불편
- ✓ 새로운 방식(카드포인트) 우리카드에 포인트 지급
- ✓ 카드포인트 지급 방법 법무부가 우리카드에 대상자 명단을 송부(송금)하면 우리카드가 카드포인트 지급
- ✕ Existing Method (Cash Bank Transfer)
Inconvenient due to difficulties in opening a bank account
- ✓ New Method (Card Points)
Points are credited to Woori Card
- ✓ How Card Points Are Issued
The Ministry of Justice sends (transfers) the list of eligible recipients to Woori Card, and Woori Card credits the card points



매달 지원 규모는? What is the monthly support amount?

< 생계비 지원액 고시(법무부, '23년) >
< Notice on Living Cost Support Amounts
(Ministry of Justice, 2023) >

가구 규모 Household Size	월 지급액 Monthly Payment Amount
1인 가구 1-person household	583,400원(won)
2인 가구 2-person household	978,000원(won)
3인 가구 3-person household	1,258,400원(won)
4인 가구 4-person household	1,536,300원(won)
5인 가구 5 or more persons	1,807,300원(won)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는 50% 지급
※ Residents of Immigration Reception Center receive 50% of the amount



난민신청자 생계비란? What is the Living Cost Support for Refugee Applicants?

정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범위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우선 지원 대상 임신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난민신청자

It is a government program that helps refugee applicants to maintain a basic standard of living during the initial six-month period during which their employment is restricted.

※ Priority recipients

Pregnant women, the elderly, those accompanied by infants or young children, and refugee applicants who need assistance due to illness or dis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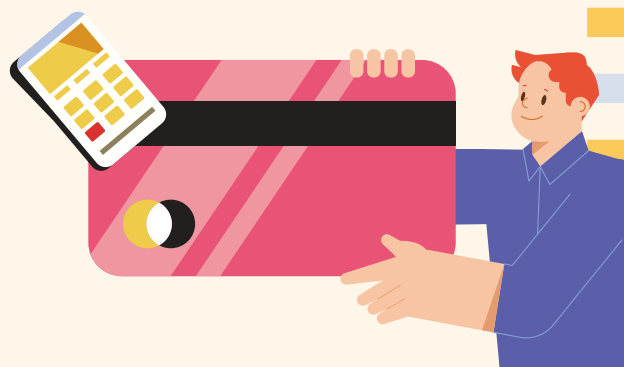
포인트 사용처는? Where can the points be used?

- ✓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
식료품, 의류, 생필품 구매 | 교통비 | 통신, 공과금 납부 등
- ✕ 사용 불가 항목
유흥·사행업종, 전자상거래, 해외 송금
- ✓ May only be used for basic living expenses
Purchases of groceries, clothing, and daily necessities | Transportation costs | Payment of telecommunications and utility bills, etc.
- ✕ Prohibited uses
Entertainment and gambling-related businesses, e-commerce, and international money transfers



시행되는 시기는? When will this take effect?

- ✓ 2026년 9월부터 신규 수급자 대상
포인트 지급 시작
- ✓ 2027년부터 포인트 지급으로 일원화
- ✓ Starting in September 2026, Card Points will begin to be provided to new recipients
- ✓ Starting in 2027, support will be provided exclusively through Card Points.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제19회 세계인의 날’



투둑투둑 붐비를 뚫고 방문객들이 속속 행사장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세계 각국 민속의상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반갑게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 용산, 오늘날만큼은 여기가 지구촌이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가 주최한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현장. 32개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이주기구(IOM)·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까지 700여 명이 어느새 용산 아트홀 대극장을 가득 메웠다.



올해 제19회를 맞은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5월 20일 용산아트홀에서 열렸다. 식전 행사와 공식 행사로 나뉘어 각종 공연,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감사장 수여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식전 행사] 무대의 첫 목소리, 재정착난민 아이들의 합창

식전 행사 첫 순서는 ‘하울림합창단’이 열었다. 인천에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족 난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이어진 패션쇼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이 꾸몄다. 몽골의 ‘델’, 우크라이나의 ‘비쉬반카’, 키르기스스탄의 ‘코이노크’, 몰도바의 ‘이에와’ ‘카트린처’, 베트남의 ‘아오자이’, 카자흐스탄의 ‘사우켈레’ 등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이들이 런웨이를 걸을 때마다 박수가 터졌다. 무대를 준비한 이들은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 땅에서 평화롭게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한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동포, 외국인 등 이민자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20일 전후로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오프닝]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린 여러분”

오후 2시, 대북 미디어 공연과 함께 본 행사의 막이 올랐다. 사회는 아나운서 문소리와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가 맡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32개국 대사과 국제이주기구(IOM)·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까지 주요 내빈 소개만도 수 분이 걸렸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함께하는 참석자 여러분”이라는 사회자의 말에 관객석에서는 박수로 화답했다.

곧 주제 영상이 스크린을 채웠다. IT 강국, K-콘텐츠의 약진,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의 현실.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맞아 다양성이 곧 경쟁력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연구소의 외국인 과학자, 안심 귀갓길 자원봉사에 나선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실의 이민자들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얼굴들이 지나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수상자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민과 이민자 모두 공감하는 출입국 이민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는 수요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이민 행정,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 이민자 통합을 내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과 이민자 모두가 ‘공존’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9회 세계인의 날을 계기로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기념사에서



(위) '국무총리상' 수상자들

(아래) 공군참모총장 감사장 수여자들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는 수요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이민 행정,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 이민자 통합을 내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공자 포상]

“사랑과 연대는 국경이 없습니다”

유공자 포상식의 으뜸은 대통령표창 개인 부문, ‘올해의 세계인상’이었다. 수상자는 콜롬비아 출신 마르가리타 수녀(성가정의 카푸친 수녀회). 1996년 한국에 첫발을 디딘 그는 전주의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미고의 집’ 시설장으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곁을 27년간 지켰다. 콜롬비아 대사는 축하에서 “사랑과 연대는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단체 대통령표창은 안산시고려문화센터와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가 받았다.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객석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다. 감사장 수여식에도 몽



'대통령상' 수상자들



클한 장면이 있었다. 2022년 제주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공군참모총장 감사장을 받아 들었다.

[특별공연] 무대가 세계가 되는 시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테리스 브라운(미국)은 출입국·이민 행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와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수상 직후 '한글팀' 멤버인 크리스티안, 사오리와 함께 한국어 노래와 수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들로 구성된 '아름드리합창단'의 맑은 목소리는 행사장을 따뜻하게 감싸안았다.

이어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가 해금과 전자 기타, 화려한 의상과 춤으로 무대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마지막 공연은 다국적 K-팝 그룹 '아홉(AHOF)'이 장식했다. 다섯 나라 출신 아홉 명의 멤버들이 데뷔곡을 열창하자 관객들도 같은 리듬에 몸을 맡겼다.

기념식 영상은 법무부TV·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 채널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www.togetherday.k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제19회「세계인의 날」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진위유 | 중국 텐진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행사부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고 제작한 거예요. 오늘 8개 나라에서 왔는데, 각자 소장하고 있던 전통의상을 다 가져왔어요. 외국인분들이 오시면 마음에 드는 거 입어보고 사진 찍고, 홍보도 하고 모두가 즐거운 체험이에요.”



MD 알라민 | 방글라데시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원봉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인도, 네팔 같은 나라 분들 안내하는 일인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해요. 오늘 비도 오고 좀 춥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와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윤금선 | 아름드리 다문화원 이사장 · 아름드리합창단 단장
“세계인의 날 행사에 올해로 여섯 번째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몽골,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프랑스... 다 달라요. 올해는 노래하기 전에 각 나라 언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먼저 할 거거든요. 오늘도 연습한 대로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이동하는 문화가 도시를 확장한다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한국 사회

한국 | 교통카드 한 장으로 연결되는 '이동'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어 환승이 쉽고, 특히 버스와 지하철은 일정 시간 안에 갈아타면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점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선불형 교통카드(T-money 등)나 후불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버스·지하철·택시까지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모바일 교통카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는 앞문으로 승차해 카드를 태그하고, 내릴 때도 반드시 단말기에 한 번 더 태그해야 환승 할인이 유지됩니다. 지하철은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고 들어가 목적지에서 다시 태그하면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자동 계산되죠.

장거리 여행에는 KTX와 SRT 같은 고속철도가 편리합니다. 승차권은 코레일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게 좋으며, 좌석이 지정되어 있어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택시는 거리에서 잡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 같은 호출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와 교통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현금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대중교통수단 핵심 가이드



01

교통카드

선불 혹은 후불
교통카드 준비



02

버스·지하철

승차할 때 태그,
하차할 때도 반드시
한 번 더 태그



03

환승할인

30분 이내 환승하면
요금 절약



04

실시간 길찾기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으로 이동경로 &
도착시간 확인

주요 교통카드 종류

선불형	후불형	환급형(K-패스)	외국인 전용
지하철역· 편의점에서 구매 후 현금 충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 비율 환급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전용카드(와우패스, 티머니, 코레일 패스)

외국인 등록번호
있으면 이용가능한
K-패스 신청해요!



대중교통은 그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알아봐요.

KOREA

세계는 어떻게 이동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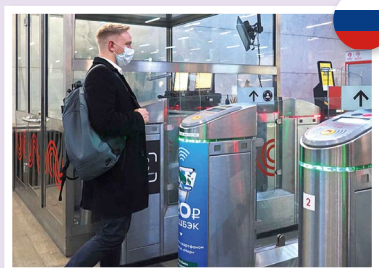


Case 01 | 독일 | 개찰구 없는 '신뢰의 교통'

독일은 대부분의 지하철과 트램에 개찰구가 없습니다. 승객이 스스로 올바른 티켓을 가지고 탑승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요. 지하철·트램 이용 시 무인 자동판매기 또는 독일철도 모바일 앱을 통해 먼저 티켓을 구매합니다. 이때 종이 승차권은 탑승 전 반드시 편칭기(Entwerter)에 날짜와 시간을 찍어야 효력이 생겨요. 시내버스를 탈 때는 운전기사에게 티켓을 보여주거나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고, 내릴 때 따로 표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Case 02 | 중국 | 스마트폰 하나로 이동하는 도시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일상이 되었어요. 지하철 입구에서는 공항처럼 X-레이 보안검색을 거쳐야 하며, 대부분 스마트폰 QR코드를 개찰구에 스캔해 탑승합니다. 최근 주요 대도시에서는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 대면 문이 열리고 자동 결제되는 안면인식 승차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운영 중이에요.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하철 간 환승은 무료이지만,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 할인은 제공되지 않아요.



Case 03 | 러시아 | 지하 궁전과 미니버스 문화

러시아 지하철은 깊은 지하에 만들어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50~100m까지 내려가는 역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지하철 개찰구에 카드를 접촉하고 입장하는데요. 요금은 이동 거리와 관계없는 단일 요금제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안면 인식 승차 시스템인 페이스페이(Face Pay)를 전면 도입해 얼굴 스캔만으로 탑승이 가능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 일정 시간 내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버스 외에도 '마르시루트카'라는 미니버스가 있어 손을 들면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남아 있어요.

Case 04 | 태국 | 툽툽부터 지상철(BTS)까지

태국의 대중교통은 만성적인 도로 정체를 피하기 위한 도심 지상철(BTS)·지하철(MRT)과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툽툽'과 오토바이 택시(랍쟁) 같은 이색적인 교통수단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방콕의 버스는 현금을 받아 종이 표를 끊어주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버스 중에서 에어컨 버스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안내원에게 미리 목적지를 말해야 해요. 대부분의 택시가 차량호출앱(Grab, Bolt 등)을 서비스 중이며,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툽툽'은 미터기가 없어 탑승 전에 반드시 요금을 흥정해야 하죠. 🇹🇵



ABROAD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 그 나라의 이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KIS NEWS

2026.
SUMMER
Vol. 76

01 한국 적응 돕는 '이민자 멘토' 47명 새 출발 한국 생활 경험을 나누며 사회통합의 든든한 동반자로 활동

법무부는 4월 8일 「제4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을 열고 신규 멘토 23명을 포함한 47명의 멘토를 위촉했다. 멘토단은 23개국 출신의 동포, 외국인, 귀화자로 구성됐으며 2028년 4월 7일까지 2년간 한국 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새내기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통합 정책 자문과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02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새 방향 '모색' 정부·대학이 함께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논의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4월 20일 출범하고 새로운 비자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D-2, D-4)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이다. 입국 전에는 학업 의지와 한국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자율적인 관리와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 등을 논의했다.



03 미래를 준비하는 이민정책, 함께 논의하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법무부 유튜브
[법TV 라이브]

법무부와 서울대학교는 4월 22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해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04

계절근로자 지원체계 강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첫 지정

법무부는 계절근로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4일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은 국내·해외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은 낮추고,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는 등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

법무부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및 실질적 권익 보호 체계 강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했다.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교육·정보제공, 상담,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06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법무부 장관, 양주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방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계절근로자의 근로·주거 여건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 집중 거주지역의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전국 37개로 확대한 바 있다. ▶22p.



07

법무부·국회 '우수 해외인재 유치' 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추진 관련

법무부는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세계 최고 연구자를 위한 '톱티어 비자' 무엇이 달라졌나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가
한국에서 연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Q&A로 알아봐요.



Q 최근 '톱티어 비자' 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2026년 6월부터는 '과학기술 분야 대학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진 해외 인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이나 필즈상 등 국제적인 권위의 상을 받은 사람 ▲세계적인 학술지의 대표 논문 저자 ▲국제 특허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 ▲세계적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구한 교수·연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연구자는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톱티어 비자를 받으면 연구자는 물론 가족도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연구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거주 비자(F-2)를 즉시 부여받을 수 있고, 영주권(F-5)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간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부모와 가사도우미의 동반 체류(F-1)도 허용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해외 인재를 초청하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천서를 신청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을 받은 뒤 법무부에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및 체류민원 신청은 온라인(비자포털 www.visa.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톱티어 비자 (F-2-T)의 모든 것!

새로운 대상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26년 6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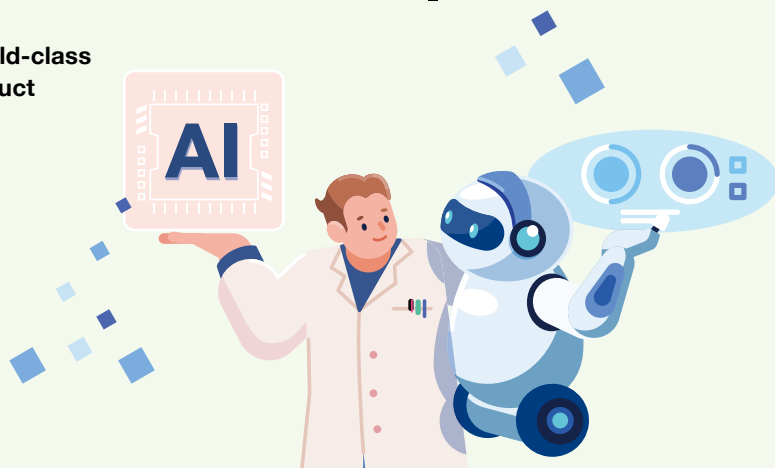
5년 → 3년 단축

가족 동반

배우자·미성년 자녀
(거주, F-2 부여),
부모·가사보조인
(동반, F-1 부여)

“Top-Tier Visa” for the World’s Leading Researchers: What Has Changed?

South Korea has expanded its “Top-Tier Visa” program to enable world-class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to conduct research and live in the country. Find out more in this Q&A.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Top-Tier Visa (F-2-T)!

New Eligibility Criteria

Outstanding overseas professors and researchers
(Effective June 1, 2026)

Permanent Residency Application

Reduced from 5 years to 3 year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Spouse and minor children (granted F-2 visa), parents and domestic workers (granted F-1 visa)

Q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o the recent “Top-Tier Visa” program?

A Previously, the program focused primarily on corporate research personnel in cutting-edg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otechnology. However, starting in June 2026, the eligibility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Q Who is eligible to apply?

A The program is open to international talent with outstanding research achiev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example, the following individuals are eligible: ▲ recipients of internationally prestigious awards such as the Nobel Prize or the Fields Medal; ▲ lead authors of papers published in world-renowned academic journals; ▲ researchers holding international patents or possessing outstanding technologies; and ▲ professors and researchers who have conducted research at world-class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dditionally, researchers with high growth potential may be recommended by the Top Talent Recommendation Review Committee even if they do not meet the quantitative criteria.

Q What benefits are available?

A With a Top-Tier Visa, not only the researcher but also their family can live a stable life in Korea. Key benefits include the immediate issuance of the Resident Visa (F-2) not only to the researchers but also to their spouses and minor children; the waiting period required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F-5) is reduced from 5 years to 3 years; and parents and domestic workers are permitted to stay in Korea (F-1).

Q How do I apply?

A First, th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ion, or corporate research lab wishing to invite foreign talent must apply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for a letter of recommendation. After obtaining the recommendation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applicant submits a visa application to the Ministry of Justice; following a review, the visa is issued within two weeks. Applications for visas and residence-related services can be submitted online (Visa Portal, HiKorea), making the process even more convenient.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핫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주제영상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지난 5월 20일 제19회 세계인의 날에는 32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수많은 이웃들 700여 명이 모여 문화축제를 펼쳤습니다. 주제영상으로 세계인의 날 의미를 되짚어 보아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E-7 비자 변경 제도 안내



유학(D-2) 비자와 구직(D-10)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 비자로 변경을 지원해요.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톱티어(Top-Tier) 비자를 첨단산업 분야를 넘어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카드포인트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카드 포인트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현금 방식에서 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 편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요.

KIS EVENT

EVENT 1

사진 공모

독자 여러분의
'한국에서 보낸 여름'을
소개해 주세요



- **공모 주제** 한국에서 보낸 여름
※ 타인 사진 제출에 따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인물 사진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사전동의를 받아 제출해 주세요.
- **참여 기간** 2026년 9월 4일(금)까지
- **제출 방법** 사진 파일과 추가정보(이름, 연락처, 작품 제목과 설명, 촬영 날짜)를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moonkl2021@daum.net
- **당첨자 발표** 2026년 9월 중 개별 통보
- **이벤트 혜택** <공존> 가을호 게재 및 소정의 상품 지급

EVENT 2

독자 설문조사 & 채널 팔로우 하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존> 2026년 여름호를 보신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고,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팔로우해 주세요. 정성스럽게 후기를 남겨주신 독자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 기간 : 2026년 9월 4일(금)까지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채널 팔로우(혹은 구독)하고 인증샷 찍기(캡처, 촬영 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 2 설문조사 링크 접속하기



- 3 <공존> 여름호 읽고 난 후기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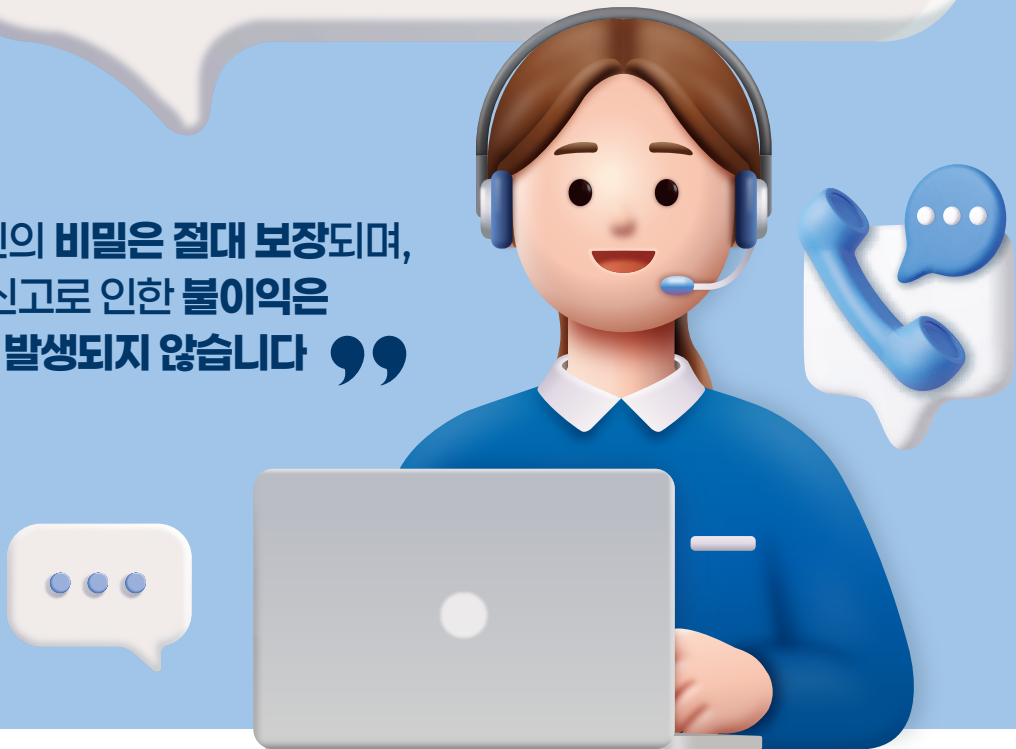
- 4 SNS채널 팔로우 인증샷 업로드하고 설문조사 제출!



1345 누르고 1 누르면!

인권침해 신고 직통번호

“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지역번호 없이 1345 누르고 1 누르기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서비스 운영)

이용대상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은 누구나

제공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20개 언어



Facebook
인권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